

세계적 영성음악인과 만난다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16~18일 첫 영성음악제

지리산 천년고찰에서 세계적인 영성음악인들이 참여하는 음악제가 열린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구례 화엄사, 천은사와 지리산 일대에서 펼쳐지는 '화엄제 2006'이 그것이다. '첫 발자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영성음악제이다. 화엄제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영성음악

가수 드렌 삭 다사이(사진 왼쪽)와 음악을 통해 영성회복과 치유작업을 하는 미국 뮤지션 제니퍼 베레잔(사진 가운데), 인도 전통악기인 반 수리 연주자 밀린드 다테(사진 오른쪽), 몽골의 모링호르 연주자 푸렘후테우진과 오르팅(長歌·몽골전통음악)도 가수 아담비쉬 네르구이, 일본 음악가 마즈다 세이잔과 요시다 다카히, 한국의 푸리와 음악 극집단 바람꽃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

을 해온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달라이라마와 함께 망명생활을 하면서 유럽의 영성음악을 이끌고 있는 드렌 삭 다사이를 비롯해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성음악을 선보인다. 이번 화엄제 총감독을 맡은 박치을 교수(순천대)는 "영성음악은 마음에 병을 치유하는 음악을 총칭하는 것으로 불교, 힌두교, 수피니즘, 사머니즘이 영성음악의 뿌리이다"며 "화엄제를 통해 내적 평화없이 세계평화를 다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한국인의 정신적 성지인 지리산과 화엄사에서 상채받은 세계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조하기 위한 아담법석을 펼친다"고 밝혔다. 화엄제는 16일 순천대 지리산 수련원에서 전남지역 전통음악과 몽골인도 영성음악을 시작으로 17일 천은사 앞 카페(몬나 무 엄터)에서 드렌 삭 다사이, 제니퍼 베레잔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18일 회향일에는 화엄사 대웅전 앞에 특별무대를 마련하고 대규모 영성음악 공연을 펼친다. (061)782-7600 이준엽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 화순 무료급식소 '연꽃세상'

11월을 시작하는 첫날, 오늘의 주메뉴는 굴비 무우조림. 전남 구일한 굴비 50여 마리가 무 위에 가지런히 놓이고, 대형 전기밥솥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자 갑자기 조리실이 부산해진다. 전남 화순 광덕리 신시가지에 자리한 무료급식소 '연꽃세상'은 낮 12시가 되기도 전에 상차림이 끝난다. 아침 결 점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영일제가 지자체나 사회단체의 후

금년 들어 연꽃세상의 무료급식 소문을 듣고 화순군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6개월가량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아 슬픔이 트이는 듯 했으나 도리어 운영방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지도법사 영재 스님이 "진정한 자비 실천 도량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군의 후원을 끊고 자체 운영"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 9월부터 쌍봉사가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연꽃봉사단이 봉사를 맡으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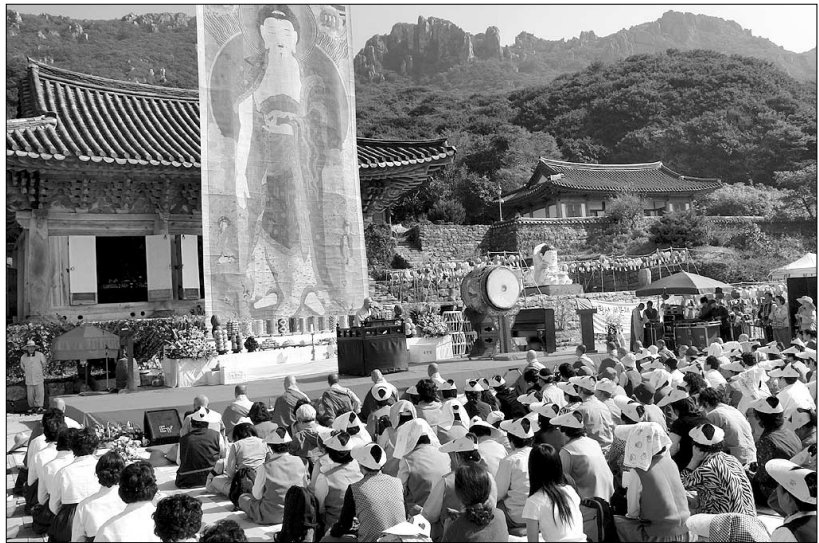


연꽃봉사단은 무료급식소 '연꽃세상'을 찾은 노인들을 위해 노력봉사로 땀을 흘리고 있다.

자금·인력난 이증고 딛고 자립 운영 거동불편 어르신·장애인에 반찬 배달

원없이 지역 불자들의 힘으로 이뤄지기에 화순 연꽃세상은 더 진한 향내가 난다. "농촌의 노령화는 심각합니다. 노인들은 없어서 굶고, 먹을 힘이 없어 굶고, 머느리 눈치 보다가 굶어,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꽃세상 지도법사 영재 스님(쌍봉사 주지)은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지역불자들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화순 연꽃세상은 지난해 1월 화순사암연합회의 발의로 시작됐다. 개천사, 만연사, 쌍봉사, 양복사 등 지역 사암에서 공양미를 십시일반하고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맡았다. 자연스럽게 봉사자들이 모여 연꽃봉사단을 창립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연꽃세상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불자들의 힘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도량이 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0~70여명의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이 찾았다. 그러나 운영이 쉽지 않았다. 사찰사찰에서 주 1회씩 무료급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점심을 공양하는 이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몸이 아파 못오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연꽃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유정실 단장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 신행을 점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뜻이 부처님 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낮 12시 무렵, 연꽃세상은 벌써 설거지 모드로 돌입했다. 늦게와서 공양을 마친 할머니 한분이 낯선 방문객에게 합장하며 말을 건넸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밥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를 겁니다. 모두들 편하게 대해주세요. 오늘도 부처님 대접 잘 받고 갑니다." 후원 (농협 623119-51-020613 연꽃세상) 이준엽 기자



해남 미황사는 10월 28일 보물 1342호인 미황사괘불을 내걸고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괘불제를 봉행했다.

미황사 '기도하는 괘불제' 성황

'만법공양' 올리고 정진 다짐

국내 유일의 괘불제가 10월 28일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 경내에서 봉행됐다. 금년으로 7번째 맞는 미황사 괘불제는 '기도하는 괘불제'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보물 제1342호 미황사 괘불이 이운되고

본격적인 아담법석이 펼쳐지자 미황사 아랫마을 서정분교 어린이들이 나와 당적으로 법석을 장엄했다. 이어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장을 지낸 고우 스님이 법좌에 올라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적 자치를 높이는 데 힘쓰라"는 법어를 내렸다. 괘불제의 절정은 '만법공양'. 스님들의 꽃 공양에 이어 전국에서 다양한 이들이 나와 농산물, 수산물 등 일년간 농사지는 수확물과 논문, 작품, 일기장 등을 공양하고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괘불제에 이어 작은음악회에서 금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황사는 괘불과 대웅전, 부도전 등 수많은 보물이 있지만 참 사람의 향기, 한문학당, 경전읽기모임 등 공부하는 이들 또한 자랑스런 보물이다"며 "더 많은 보물이 나오도록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다. 글·사진/해남=이준엽 기자

재소자 대상孝 문학작품 공모

옥천 대상사 이달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옥천 대상사(주지 혜철)가 재소자 포교 활성화 차원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할 수 있는 작품은 효를 주제로 한 편지, 신행수기, 강생의 의욕이 담긴 수필 등으로, 11월 30일까지 대상사(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로 접수하면 된다. 박봉영 기자

당선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가장 등 총 24개 작품을 선정하며, 각각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12월 15일 해당 교도소로 통보된다. 청주교도소 종교위원인 대상사 주지 혜철 스님은 "재소자들에게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43)732-5560 박봉영 기자

익산 백운사, 진신사리 친견법회



익산 백운사(주지 우성)는 10월 29일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부처님 사리를 담안에 봉안하기 앞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300여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사리가 천호산에 모셔지게 된 것은 일대사 인연으로 익산불교의 자랑이다"며 "부처님을 가까이서 예경하고 정진하여 다같이 깨달음을 성취하자"고 말했다. 이날 일반에 공개된 사리는 미얀마계 미국인 의사 산야 씨가 백운사에 기증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난존자, 사리불 존자의 진신사리이다. 이준엽 기자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 예술제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11월 12일 경내일원에서 제1회 도선국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영암군이 후원하는 도선국사예술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마당을 제공한다. 풍수를 주제로 한 인테리어, 풍수행궁 모형도, 사진으로 보는 도갑사 전시회는 대표적인 볼거리다. 들차회, 인경, 탁본 체험, 산사영화제 등도 접할 수 있다. 종법스님 조청강연, 생활풍수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진다. (061)473-5122 이준엽 기자

청주 용화사 장애인 가을소풍

청주 용화사 용화봉사단(단장 김대근)은 10월 28일 가톨릭 정신지체 장애인시설인 성보나리집 일생들과 함께 가을소풍 행사를 가졌다. 35명의 1급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보은 세종초등학교에서 열린 사랑의텔레미 행사에 참가해 용화봉사단 30여 회원들과 함께 노래자랑과 장기자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혜철 대전 총부 이사장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부처님 당시 경전 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회원 모집

부처님 당시 생생한 옥성법문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 할 때 팔만대장경 또는 아람경(장야람·중야람·중일야람·잡야람)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 언어인 팔리어로 된 5부 니까야(디카니까야·맛지마니까야·쌍웃파니까야·앙굿따라니까야·쿿다카니까야)가 진정 팔만 대장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과를 갖고자 하오니 이런 귀중한 모임에 불자들의 간절한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06년 12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3층법당
- 법 사 : 전재성, 이미령 교수
- 교 재 : 5부 니까야
- 대 상 : 한글 니까야 독송을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 회 비 : 동창회비 월 5만원 (교재제공)
- 특 전 : 청년회원은 월 3만원
- 문 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청년회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5분이면 나도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중에서 작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엄선하였습니다.
- 320여 가지의 성을 한자의 획수별로 분류하여 2획으로 된 성부터 22획 성까지, 상생의 원리와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까지 조화를 이루어 **성씨별로 2000개에서 3000여개의 이름**들을 엄선하여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 **이름, 범명, 범호, 상호, 기타** 작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작명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작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이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을 원하십니까? 작명, 개명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이름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재물을 풍요롭게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작명하는 것은 작명가의 능력입니다.

역학개인지도

- 모집인원 : 3명(선착순) • 자격 : 남·여, 학력, 나이 제한없음
- 기간 : 2006년 12월 1일부터 3개월(주당 8시간)
- 사 주 및 작명의 대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정가 50,000 (오만원)
-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